

中學生 英語 쓰기에 나타난 誤謬 分析

指導教授 玄 琬 松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姜 美 淑

姜美淑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중학생 영어 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

강 미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지도교수 현 완 송

중학생 영어 쓰기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를 조사, 분석하는 본 연구는 중등학교 영어교사들이 영어 쓰기를 지도하는데 다소의 도움이이라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언어습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조분석가설과 중간언어가설, 그리고 오류분석 이론을 외국어 학습과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특히 오류분석이론에서의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III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중학교 2, 3학년 수준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비교적 간단한 30개의 문항을 중학교 2, 3학년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절반 이상 답하지 않은 학생들의 자료를 제외한 30명의 학생들의 문항지만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범한 오류의 원인을 언어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와 언어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 그리고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언어간/언어내 전이로 구분하여 양적 비율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문항별 조사에서 총 900문항 중에서 정답수는 155개(17.2%), 오류수는 593개(65.9%), 무답수는 152개(16.9%)로 나타났다.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둘째로, 오류의 원인별로 나누어 보면 언어간 전이에 의한 오류는 전체 오류 중 52.75% 이고, 언어내 전이에 의한 오류가 14.5%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32.75%로 나타났다.

셋째로, 품사별 오류를 살펴보면 오류의 빈도순위로 접속사(96.7%), 표현(95%), 부사(93.3%), 형용사(91.7%), 전치사(83.3%), 조동사(82.2%), 동사(82%), 관사(80.7%), 구조(어순) (80%), 명사(76.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사가 지도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실험문항들의 난이도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접속사가 가장 어렵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학습자들은 모국어와 영어의 구조 자체의 어려움과 불규칙성으로 인한 언어간 전이와 언어내 전이로 인하여 교사의 노력에 관계없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언어간 전이에 의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며, 문법적인 요소에 대한 지식을 조금 습득한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목표어의 규칙을 일반화시켜 적용하는 언어내 전이에 의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오류 수정 방안을 연구하여 상황에 맞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오류가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피하려고 하지 말고 학습자들이 자신이 범한 오류를 스스로 인지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쓰기에 대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언어 습득의 궁극적 목적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에 있으므로 지나치게 오류를 찾는 데 주력하여 자연스러운 의사전달을 오히려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류를 교정해야 하겠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7
1. 대조분석가설	8
2. 중간언어가설	14
3. 오류분석이론	17
III. 영어 쓰기 오류 분석	29
1. 목적 및 대상	29
2. 방법 및 문항	29
3. 문법 범주별 오류 실태	33
4. 오류 분석 결과	48
IV. 결론	53
참고문헌	55
Abstract	59



표 목 차

〈표 1〉 실험에 사용된 문항	30
〈표 2〉 실험에 사용된 문항의 정답표	32
〈표 3〉 명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34
〈표 4〉 관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36
〈표 5〉 동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38
〈표 6〉 조동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41
〈표 7〉 형용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42
〈표 8〉 부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43
〈표 9〉 전치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45
〈표 10〉 접속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46
〈표 11〉 어순 오류의 분포현황	47
〈표 12〉 표현류 오류의 분포현황	48
〈표 13〉 전체 문항에서의 정답 수와 오답 수 현황	49
〈표 14〉 문항별 오류의 빈도와 비율	50
〈표 15〉 유형별 오류의 빈도와 비율	51
〈표 16〉 오류의 원인별 결과	52

I. 서론

최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통합언어기능(integrative language skills)의 신장을 강조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 적용되어 영어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배양에 역점을 둔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사 표현하는 능력(productive ability)의 신장을 강조하면서 말하기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말하기와 더불어 자신의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인 쓰기는 교육현장의 여러 이유로 인하여 다소 등한시 되고 있다.

우리의 영어 교육 현실에서 영어 쓰기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첫째 이유는 최근 영어 교수-학습 형태가 듣기 및 말하기 위주의 교수-학습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는 다인수 학급에서 시간부족과 평가의 어려움으로 고작해야 쓰기 학습은 받아쓰기(dictation) 형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쓰기는 그 영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 것은 모국어와 외국어의 체제를 비교, 대조하는 대조분석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이 대두되면서이다.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는 대조분석가설에서는,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모국어에 의한 간섭(interference)과 전이(transfer)현상을 설명하면서 외국어 학습자의 대부분의 오류는 이로부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학습에 방해가 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사전 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섭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학습을 통해 익힌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전이되면서 간섭하는 것을 일컫는다.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자들은 언어의 네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균형 있게 학습하고 습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에서 이러한 언어의 네 기능의 연관성 및 통합적 학습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일선교육에서는 유독 쓰기 기능만은 소홀히 다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간단한 표현을 하는데도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 그러나 쓰기의 목적도 글쓴이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의사 전달의 한 방법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쓰기 지도는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ulston은 쓰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On the beginning and intermediate levels writing serves to reinforce and consolidate the other language skills; it is also important for homework and testing purposes. Writing, then, is used as a service activity, in accordance with the view that transfer is perhaps the single most important concept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Writing tends to increase retention and makes possible a source for later reference.¹⁾

즉 외국어 습득과정의 초급과 중급단계에서 쓰기는 다른 언어 기능들을 보강하고 강화해주는데 기여하고 과제와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쓰기는 학습자의 기억력을 증진시켜 후에 참고를 위한 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Rivers는 쓰기는 다른 기능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고도의 기능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C. B. Paulston(1972), "Teaching Writing in the TESOL Classroom : Techniques of Controlled Composition", *TESOL Quarterly*, vol. 6, no. 1, p.1.

Writing practice will at first be a service activity, consolidating work in the other area. ... The higher levels of composition will be possible only when the students has attained some degree of mastery of the other skills.²⁾

즉 쓰기교육은 다른 세 기능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보다 더 복합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세 기능이 어느 정도 향상될 때만이 쓰기 능력을 향상될 수 있다.

민찬규는 영어교육에서 쓰기 교육이 갖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쓰기교육은 기초단계에 있는 학습자에게 영어 단어에 대한 인식이나 문법구조에 대한 제어를 쉽게 할 수 있고, 습득 정도가 높아질수록 학습자 자신의 아이디어, 생각, 경험 등에서 얻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교수 방법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쓰기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기 발견적(heuristic) 학습을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직접 쓰기를 해 봄으로써 구두어를 사용할 때 보다 구문의 형식이나 표현의 습득 정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쓰기교육은 학습자에게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넷째, 쓰기교육의 다른 장점은 개별학습을 통한 영어의 학습 뿐 아니라 교사나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interaction)을 통한 학습도 가능하게 한다.³⁾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윤순은 오류를 불가피한 학습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2) W. M. Rivers(1981),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297.

3) 민찬규(1994), “영어교육과 쓰기교육,” 「영어교육」 제48호, 한국영어교육학회, pp.172~174.

오류는 대조분석론에서 생각하듯 나쁜 것이 아니며 학습이 진행중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본다.⁴⁾ 오류분석론은 이들 오류를 분석하여 그것을 학습전략에 이용하는 것이다.

오류분석과 학습자 오류의 중요성에 대해 Corder는 아래 인용문에서처럼 첫째 오류는 학습자가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발전해 왔는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더 학습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하며, 둘째 오류는 언어가 어떻게 학습되어지며 학습자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지표가 되며, 셋째 오류를 저지르는 것은 학습자가 배우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즉, 학습하는 언어 본질에 대한 가설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는 학습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 learner's error, then, provide evidence of the system of the language he is using at a particular point in the course. They are significant in three different ways. First to the teacher, in that they tell him, if he undertakes a system analysis, how far towards the goal the learner has progressed and, consequently, what remains for him to learn. Second, they provide to the researcher evidence of how language is learnt or acquired, what strategies or procedures the learner's employing in his discovery of the language. Thirdly they are indispensable to the learner himself, because we can regard the making of errors as a device the learner uses in order to learn. It is a way the learner has of testing his hypotheses about the nature of the language he is learning.⁵⁾

4) 이윤순(1991), “오류분석을 통한 쓰기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 중학교 2학년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p.1~2.

5) S. P. Corder(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pp.10~11.

신영득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학생들이 영어를 습득할 때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⁶⁾ 이러한 오류에는 어느 정도 규칙과 체계성이 있으며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는 학습자들의 언어지식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쓰기 오류의 분석을 통하여 오류의 주요 유형과 요인을 살펴보고 학습상의 난점을 이해함으로써 영어로 조금이나마 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내용은 여러 학자들이 저술한 문헌 자료를 토대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근무하는 중학교 2, 3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중학교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영작 30문항을 45분의 제한된 시간 내에 치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통계방법으로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II 장에서는 오류와 실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 후, 이론적 배경으로 언어 습득과 관련 있는 대조분석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과 중간언어(interlanguage), 그리고 오류분석(error analysis)이론을 차례로 외국어 학습과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III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비교적 간단한 30개의 작문 문항을 연구하여 그들이 범하는 오류를 품사별로 분류하고 다시 언어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와 언어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로 나누어 각각 그 비율을 표시하였다.

IV 장은 결론으로 앞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 되겠다.

6) 신영득(1999), “오류분석 : 중3학생들의 영어작문을 통한 오류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1.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제시하는 설문 통계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외적 요인 중에서 학습자의 학습동기, 학습태도, 교수방법, 학습자의 연령, 개인적 지능차, 교사와 학생의 상호관계, 교수방법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작문능력 평가에서 번역방법만을 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언어간 전이를 유도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의 원인을 언어간 전이와 언어내 전이에 의한 오류의 두 가지로만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조사 대상교가 한 학교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역간의 편차가 고려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영작문 오류의 유형별 조사와 그에 대한 분석은 제시되었으나 이것을 실제로 해결 할 영작문 교육의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차후에 연구하도록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통례적으로 언어습득의 상황을 모국어, 제2언어 및 외국어로 구분하여 다룬다. 이 중에서 제2언어와 외국어를 흔히 동의어로 쓰이나 엄격히 말하면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민을 간 사람의 경우에 생활에 편의상 모국어 이외에 제2언어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어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그것이 통하지 않아도 생활에 별로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한국에서의 영어가 이에 속한다. 모국어와 제2언어나 외국어의 습득과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모국어는 성장과정의 일부로 습득되는데 반하여 제2언어나 외국어는 성장과정이 끝나서 학습됨이 통례이다.

영어 학습자가 영어 쓰기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영어교육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조분석가설의 입장에서는 오용을 언어간섭현상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오용분석이론의 입장에서는 언어란 규칙에 지배되는 체계이고 학습자는 이 규칙에 준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학습과정 중에 불완전한 규칙의 정착이 오류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류분석이론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중간언어 개념이 제기되고 있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체계로서의 중간 언어 개념은 학습자의 규칙적인 언어행위의 특징을 규명하자는 점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본장의 관심은 대조분석가설 및 오류분석이론을 개관하고 중간언어가설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이것이 언어학습에 미치게 될 영향력 내지는 공헌점을 찾아보겠다.

1. 대조분석가설

대조분석가설은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원인을 모국어의 영향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학습자가 갖고 있는 모국어 습관이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는 가설이다.

1960년대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이 전성기였을 때 이 이론들에 바탕을 두고 생겨난 대조 분석 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에서는 외국어 습득에 대한 주된 장애물이 모국어의 간섭이라고 보았다. 이 간섭 현상에 의해서 모국어 구조가 학습 대상어인 제2언어와 차이가 있을 때 외국어 학습에 오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에서 나온 대조분석이론에서는 언어 학습을 일종의 습관 형성으로 보고, 제2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습득된 제1언어는 제2언어 학습을 간섭하는 습관의 형성이라고 간주하였다.

대조 분석은 두 개의 언어를 상호 대조하여 그 언어학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연구다. 즉, 모국어와 목표언어를 서로 대조·분석하면 목표어의 학습에 방해(interference)가 되는 차이점을 찾아 가르칠 수 있고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론으로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학습상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는 가정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Fries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자료란 학습하고자 하는 언어를 학습자의 모국어와 비교하여 과학적으로 기술한 것이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The most efficient materials are those that are based upon a scientific description of the language to be learned, carefully compared with a parallel description of the native language of the learner.⁷⁾

7) C. C. Fries, (1945),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9.

Lado는 외국어 학습의 난점을 예측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조 분석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We assume that the student who comes in contact with a foreign language will find some features of it quite easy and others extremely difficult. Those elements that are similar to his native language will be simple for him, and those elements that are different will be difficult. The teacher who has made a comparison of the foreign language with the native language of the students will know better what the real learning problems are and can better provide for teaching them. He gains an insight into the linguistic problems involved that cannot easily be achieved otherwise.⁸⁾

즉 대조분석은 구조가 다른 별개의 두 언어를 분석해보면 공통되는 요소와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가 있는데, 이 차이점을 발견하여 학습상의 난이도를 추정함으로써 외국어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Lado는 외국어 학습에서 어려움은 주로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에서 온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Of special interest to the language teachers is contrastive linguistics, which compares the structures of two languages to determine the points where they differ. These differences are the chief source of difficulty in learning a second language.⁹⁾

Banathy, Trager, and Waddle은 외국어 학습이란 외국어와 모국어를 대조하여

8) R. Lado(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7, p.2.

9) *Ibid.*, pp.58~59.

상이한 점을 습득하는 것이라 언급하여 학습자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대조 분석이 제시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The change that has to take place in the language behavior of a foreign language student can be equated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tructure of the student's native language and culture and that of the target language and culture ... what the student has to learn equals the sum of the differences established by the contrastive analysis.¹⁰⁾

Jakobovits는 대조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Today, contrastive analysis is a widely accepted technique among second language teachers and is commonly used to guide classroom and laboratory activities in terms of the type of materials to be introduced at specific terms and the nature of the practice exercise to which the learner is to be exposed.¹¹⁾

즉, 외국어 습득 과정에 있어서 모국어와 목표 언어간의 차이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이 생기면 모국어의 습성이 목표 언어 학습에 간섭·방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재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와 간섭으로 인한 학습상의 난점을 가장 잘 훈련하여 극복할 수 있는 교재 구성이 절대적 선행 조건인 동시에 교사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 언어와의 대조분석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 B. Banathy, and E. C. Trager, C. D. Waddle(1966), "The Use of Contrastive Data in Foreign Language Course Development", In Albert Valdman ed. *Trends in Language Teaching*, Mcgraw-Hill Book Co., p.37.

11) L. A. Jakobovits(1969),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ransfer Theory", *Language Learning*, vol 19, p.56.

한편 Brown은 대조분석가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외국어 학습의 난점은 모국어 체계가 제2언어 학습을 간섭하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eeply rooted in the behavioristic and structuralist approaches of the day, the CAH claimed that the principle barrier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s the interference of the first language system with the second language system, ...¹²⁾

Whitman은 대조분석이 기술(description), 선택(selection), 대조(contrast), 예측(prediction)의 네 가지 절차를 통하여 학습상의 난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첫 번째 절차는 기술인데 이것은 언어학자나 교사가 형식문법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모국어와 목표어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은 두 언어의 가능한 모든 측면의 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조할 언어항목, 규칙,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다. 셋째 대조는 두 언어의 규칙 및 체계를 비교하는 것이며 넷째 예측은 이상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얻어낸 자료를 가지고 오류 및 학습 난이도에 대한 예측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는 이상의 4가지 단계로 얻어진 자료를 교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갖는 외국어 학습의 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³⁾

이와 같이 대조분석 이론은 널리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이 이론은 두 언어의 차이점 비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그 밖의 요인들 즉 학습형태 및 지도방법, 학습자의 심리태도와 학습태도, 그리고 이미 학습한 목표어가 지니는 문제점 등에서 오는 장애현상을 예측할 수 없다는 비판도 함께 받게 되었다.

12) H. D. Brown(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entice-Hall Regents, pp.207~208.

13) R. L. Whitman.(1970), "Contrastive Analysis: Problems and Procedures", *Language Learning*, vol.20, no. 2, pp.191~197.

이러한 입장에서 Newmark & Reibel은 대조분석에 극단적인 반대견해를 보이며 문법구조를 비교한다던가, 두 언어간의 어려움과 오류를 예측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고, 오히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천부적 능력을 학습 대상을 통하여 잘 훈련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척도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problem of interference viewed thus reduces to the problem of ignorance, a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is simply more and better training in the target language, rather than systematic drill in the points of contrast between the two languages in order to combat interference.¹⁴⁾

즉, 학습시 간섭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국어와 목표 언어 사이의 대조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것보다는 목표 언어를 통하여 잘 훈련하는 것이 간섭요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는 것이다.

Whitman & Jackson은 실제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일본인 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영문법 40항목에 대한 상대적 난이도를 예측하면서, 대조분석이 이론만큼 학습자의 언어 학습상의 간섭을 예측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결론을 지었다.¹⁵⁾

Wardhaugh는 대조분석이란 도구로 난이도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며 실행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관찰이나 직관 그리고 경험으로 전체적인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한 언어가 수십만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언어간의 음성적 차이를 넘어선 난점의 예측은 불가능하다.¹⁶⁾

또한 대조분석가설에서는 전혀 새로운 쓰기 체계를 학습하는 것이 철자규칙을

14) L. Newmark and D. A. Reibel(1968), "Necessity and Sufficiency in Language Learning", *IRAL*. vol. 6, no. 2, p.150.

15) R. L. Whitman and K. L. Jackson(1972), "The Unpredictability of Contrastive Analysis", *Language Learning*. vol.22, no 1, pp.29~41.

16) R. Wardhaugh(1970),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TESOL Quarterly*, vol.4, no.2, p.125.

재해석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Oller & Ziahosseing은 실험을 통해 그것이 사실과 반대라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대조분석가설의 신뢰성을 의심하였다.¹⁷⁾

또한 이계순은 모든 자연언어가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언어를 습득한 사람은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으며, 두 언어가 가지는 심층구조가 아주 유사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여기는 차이점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외국어를 학습할 때에는 그 언어의 심층구조가 표면구조로 표출되는 과정을 배워야 하며 언어마다 표출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대조분석은 외국어 학습에서 별 소용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⁸⁾

이러한 대조분석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이계순이 종합한 것을 보면,

첫째, 대조분석은 두 언어의 차이점에만 주력하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자 언어수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을 무시하고 있으며,

둘째, 이미 학습한 것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미 배운 언어자료에서 오는 장애 때문에 생기는 오류를 예측할 수 없고,

셋째, 규칙의 잘못된 적용이나 규칙의 유추에서 오는 오류를 고려대상에 넣지 않고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에서 오는 오류만을 진단하려고 하고,

넷째, 대조분석의 진행상의 객관성이 의심스럽다. 즉, 대조분석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언어 구조의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정이 달라지는 수가 많다고 한다.¹⁹⁾

17) J. W. Oller and S. M. Ziahosseing (1970),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and Spelling Errors", *Language Learning*, vol. 20, no. 2, 183~189.

18) 이계순(1977), "오류분석과 대조분석의 방향과 그 적용," 「응용언어학」, 제9권 제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10.

19) *Ibid.*, p.11.

2. 중간언어가설

인간 두뇌의 구조에는 생득적인 심리구조인 언어습득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 LAD)가 있어서 모국어의 고유한 특징에 의해서 수정이 가해지고 제한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오류분석이론에서의 언어능력이 정착되는 것이다. 이 이론의 언어자질은 유아기에 가장 민감하게 활성화되고 12~13세가 지나면 점차로 둔화된다고 본다.

이 생득적인 심리구조를 모체로 하여 제2언어나 외국어 학습자 각자가 접하게 되는 언어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축하는 언어체계가 중간언어체계인 것이다. 즉, 외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외국어를 말한다. 이러한 언어 체계는 목표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색하고 오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외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언어도 그 나름대로의 규칙의 소산으로서 언어의 일차적인 기능인 의사전달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언어에 '중간'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이유는 외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이 외국어가 그 외국어의 정상적인 체계를 목표로 규칙의 수정과 재확립을 거듭하는 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대조분석이론의 예견적 기능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음이 자료에 의해서 제시되고 또한 모순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언어학자들은 학습자의 측면에서 제2언어 학습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즉, 제2언어의 학습은 학습자가 여러 분야의 지식, 의사소통과 일반적인 언어에 관한 지식, 인생, 인간과 우주에 관한 지식에서 목표어에 대한 체계를 의식적으로 세우는 창조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또 이들은 학습자를 실수투성이의 불완전한 언어의 발화자로 보지 않고 그의 언어 환경에 대처해 가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습득을 통해 지능적이고 창조적으로 언어 체계를 세우며, 능동적인 학습자는 언어 습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가 배우는 목표어의 문법 규칙을 생성하고 언어 구조에 관한 가설을 끊임없이 확립해가는 창

조적인 존재로 보았다.

시험과 오류와 가설 검증의 점진적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느리고 끈질기게 제2언어의 원어민이 사용하는 체계에 점점 더 근접하는 체계를 수립하는데 성공한다. 제2언어 학습자가 갖고 있는 체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용어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Selinker의 중간언어(interlanguage)라는 용어이다.²⁰⁾ 중간언어는 구조적으로 모국어와 목표어의 중간 상태를 지닌 체계로서 제2언어 학습자의 체계의 독립성을 가리킨다. 이것은 모국어 체계도 목표어 체계도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위치하며, 학습자를 둘러싼 언어자극에 질서와 규칙을 제공하려는 학습자의 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2언어 학습자는 주어진 자료에 입각하여 스스로 제2언어의 문법 규칙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 단계의 문법 또는 제2언어 학습자의 체계의 독립성을 Selinker는 중간언어(interlanguage)라고 하였고 Nemser는 학습자의 언어가 목표어의 체계로 향해 목표 지향적인 발달을 한다는 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근사어 체계(approximative syste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²¹⁾ Corder는 개인 특유 방언(idiosyncratic diale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학습자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므로 특정한 사람에게 유일한 것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²²⁾ 또한 그는 변화하는 학습자의 언어라는 의미에서 과도적 능력(transitional competence)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학습자 특유의 방언이나 과도적 언어는 체계적 발달의 연속체이며 학습자는 그 발달의 연속선상에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용어는 달라도 제2언어 학습자는 독립적인 언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런 체계는 모국어 체계도 아니고 목표어 체계도 아닌 양자의 중간에

20) L. Selinker(1972), "Interlanguage", *IRAL* 10, pp.201~202.

21) W. Nemser,(1971), "Approximative System of Foreign Language Learners", *IRAL* 16, pp.27~44.

22) S. P. Corder(1971),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IRAL* 9, 147~159.

위치해 있는 학습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체계라는 개념에서 일치하고 있다.

Schachter & Celce-Muricia는 학습자는 언어 습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가 배우는 목표어의 제반 규칙을 만들어 내면서 언어구조에 관한 가설을 끊임없이 정립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²³⁾

Selinker는 이와 같이 중간언어를 형성하는 과정을 다섯 개로 제시한다. 첫째는, 모국어의 언어체계가 전이된 'language transfer', 둘째는, 훈련단계에 문제가 있는 'transfer of training', 셋째는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 방법의 전략에서 오는 'strategies of second language learning', 넷째는 목표어의 모국인과 대화를 나누어 의사소통을 하려할 때 학습자가 사용하는 의사소통전략의 결과인 'strategies of second-language communication', 다섯째는 목표어 안에서 규칙을 확대 적용하는 'overgeneralization of target language linguistic material'이다. 이와 같은 다섯 과정이 외국어 학습에서 중심을 이루며, 그 밖의 많은 부수적인 과정들이 합쳐서 중간 언어의 표면 구조를 나타내게 된다고 한다.²⁴⁾

Selinker는 중간 언어를 모국어와 목표어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학습자의 독특한 언어 체계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체계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간 언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각기 다른 개념으로 정의되었으나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일정한 체계를 갖춘 그 자신만의 독특한 체계를 형성한다는 점과,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 체계가 목표어의 표준 수준을 향해서 발달해 가는 유동적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중간언어는 목표어와 모국어의 특징을 공유하며 그 중간 단계로서 위치하고 중간언어의 존재는 학습자가 목표어를 창조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국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는 모두 모국어 습관의 전

23) J. Schachter, & M. Celce-Murcia, (1977), "Some Reservations Concerning Error Analysis", *TESOL Quarterly*, vol. 11, no. 4, p.442.

24) L. Selinker (1972), *op. cit.*, p.214.

이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고 학습자가 외국어 습관에 대해 알고 있는 규칙이 외국어의 규칙과 다르다는 증거가 되며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의 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학습자의 중간언어 체계를 나타내준다는 의미에서 오류는 중요하다.

3. 오류분석이론

오류분석이론은 오류의 원인을 학습자의 모국어 보다는 목표어 자체에서 찾으려고 한다.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과정에서 목표어의 일부 규칙을 과잉 적용시키는 과잉 일반화, 목표어 자체의 복잡성, 교육현장에서의 불충분한 지도 등이 오류분석이론이 주장하는 오류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오류분석(error analysis)은 대조 분석이 학습 목표어에 대한 모국어의 간섭에서 오는 장애만을 강조하고 목표어 자체에서 오는 여러 장애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1960년대 중반이후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과 이성주의(rationalism)을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제2언어의 연구자들은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 체계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들은 제2언어 습득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즉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들을 수집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학습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습자의 실제적인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수업계획과 교재 작성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류는 교사에게는 교수자료, 교수기술의 효율성에 관한 것을 알려주며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제2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지금까지 배운 부분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과 잘못 배워왔던 부분을 밝혀주는 이 오류분석은 대조분석처럼 학습자가 범하게 될 오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습자가 범하게 된 오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의 난이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는 것이다. 즉, 모국어 전이보다 학습 목표어 자체의 난해성으로 인해 생기는 오류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오류 분석 이론이다.

학습자는 오류를 저지르며, 그러한 오류들은 관찰되고, 분석되어 학습자가 내적으로 조작하는 체계의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서 학습자의 오류분석이 시작되었다.

오류분석은 단지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에서 기인하는 오류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대조분석과는 구별된다. 오류분석은 오직 학습자가 저지르는 몇몇의 오류만이 모국어에 기인하며 또한 학습자들은 실제로 대조분석가설이 예상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고, 목표어를 배움에 있어 언어의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유사한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에 따라 대조분석을 대체하게 되었다.

1) 오류의 정의와 의의



인간의 학습은 근본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는 일과 관련된 하나의 과정이다. 실수, 오판, 오산 그리고 잘못된 가정은 어떤 기술의 학습이나 정보의 습득에 중요한 측면을 형성한다. 학습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환경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위해 실수를 이용하고 그 피드백으로 계속 희망하는 목표에 더욱 근접한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성공해 가는 하나의 과정과 관련된다. 언어의 학습도 이런 의미에서 다른 모든 인간의 학습과 같다. 어린이가 성인의 문법적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배운다. 이러한 실수의 많은 부분은 어린이가 조작하는 제한된 언어체계 내에서는 논리적이다.

학습자의 언어를 적절한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실수와 오류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Corder는 오류와 실수를 구별하여 언어수행(performance)상에서 나타나는 잘못

을 실수(mistake), 언어능력(competence)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오류(error)라 정의하고, 실수는 체계적이지 않지만 오류는 체계적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We must therefore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ose errors which are production of such chance circumstances and those which reveal his underlying knowledge of the language to data: or, as we may call it his transitional competence. The errors of performance will characteristically be unsystematic and the errors of competence, systematic. As Miller(1966) puts it, 'It would be meaningless to state rules for making mistakes.' It will be useful therefore hereafter to refer to errors of performance as mistakes reserving the term error to refer to the systematic errors of the learner from which we are able to reconstruct his knowledge of the language to data, i.e. his transitional competence.²⁵⁾

즉 실수(mistake)는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표현 과정에서 어떤 좌절이나 불확실한 것에서 야기된 것이다. 성격상으로 보아 체계적인 것이 되지 못하므로 화자가 즉시 알고 때로는 우연히 일어나는 잘못이 실수이다. 반면에 오류(error)는 모국어 사용자의 성인 문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드러진 변형으로 학습자의 중간언어적인 능력을 나타낸다.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현상을 연구하는 데에 이 오류가 그 대상이 된다.

Hussein은 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학습자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일탈(slip), 실수(mistake), 오류(error)로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i) Slip : A slip of the tongue, or of the pen is a deviation of which the speaker, or writer, is aware immediately after production, and is in no doubt the

25) S. P. Corder(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RAL* 5, p.25.

correct form that should take its place. It is common that slips occur both in speaking and in writing of the native language. These are due to memory lapses, physical states, such as tiredness and psychological conditions such as strong emotions.

ii) Mistake : A mistake is a deviation which the speaker or writer can identify if he is told that he made a mistake. The speaker, or writer, may or may not be able to correct the mistake, but the point is that he can identify it.

iii) Error : An error is a deviation which the speaker, or writer can not identify, even if he is told that he deviated from the norms of the language.²⁶⁾

즉 학습자 자신의 표현이 정상적인 언어 표현에서 벗어났음을 지적 받아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을 오류라 하였다.

Taylor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볼 때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규칙을 잘못 적용한 것을 오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²⁷⁾

Duskova는 오류는 반복적(recurrent)이고, 체계적(systematic)이어야 한다고 다 음과 같이 주장한다.

We are of the opinion that an error analysis should be based primarily on recurrent, systematic errors that are made by a number of learners and that can be readily traced to their sources, no matter whether they reflect defects in knowledge or whether they result from inadequate habit formation.²⁸⁾

Brown은 실수(mistake)가 수행상의 오류이며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언어지식

26) A. H. Hussein(1971), *Remedial English for Speakers of Arabic: A Psycho-Linguistic Approach*,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ress, p.102.

27) B. P. Taylor(1975) "The Use of Overgeneralization and Transfer Learnig Strategies by Elementary and Intermediate Student of ESL", *Language Learning* 25, p.81.

28) L. Duskova(1969), "On Sources of Errors in a Foreign Language Learning", *IRAL* 7, p.16.

을 정확히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학습자의 중간언어 능력을 반영하는 오류(error)는 모국어 화자의 문법에서 분명히 벗어난 잘못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A mistake refers to a performance error that is either a random guess or a “slip” in that it is a failure to utilize a known system correctly ... An error, a noticeable deviation from the adult grammar of a native speaker, reflects the competence of the learner.²⁹⁾

최의교는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언어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는 대상 목표어를 학습하는 사람의 창조적 노력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대상 목표어에서 일탈된 체계적 형식이다. 즉, 학습자가 그 목표 언어를 학습해 가는 각 단계에 있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 언어에 대한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³⁰⁾

오류의 의의에 대해서 이계순은 첫째, 학습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언어능력을 추정하며 둘째, 수준에 따라 학습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셋째, 학습자가 범한 오류를 분석하여 이것을 교재작성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³¹⁾ 또한 유진형은 오류는 학습단계에 있어서 학습자 자신의 목표어에 대한 가설 및 학습전략을 시사하고, 학습자 특유의 언어체계를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학습자의 오류는 검출 및 분석에 의하여 학습자의 언어체계, 즉 중간언어체계를 연구하는 오류 분석론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기술한다.³²⁾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종합해보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는 모두 모국어 습관의

29) H. D. Brown(2000), *op. cit.*, p.217.

30) 최의교(1997), “중학교 영어 학습에 나타난 오류에 관한 연구 : 영어쓰기에서의 오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소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14.

31) 이계순(1977), *op. cit.*, p.8.

32) 유진형(1989), “오류분석의 방향과 문제점,” 「영어교육」 제37호, 한국영어교육학회, p.3.

전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고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 습관에 대해 알고 있는 규칙이 목표어의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며 학습자의 언어습득단계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수집하여 조직적으로 분석하고 그 빈도에 따라 난이도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외국어교수와 학습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 오류의 원인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오류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오류의 원인을 앎으로써 학습자의 정서적·인지적 자아가 언어체계에 연관되는 방식과 제2언어 습득과정을 통합적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오류에 대한 대응책 및 예방책을 발견할 수 있고 나아가 효과적인 언어 학습 지도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Dennis는 외국어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원인에 대하여 생물학적, 심리학적, 언어학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편재화(lateralization)에 의하여 대뇌의 좌측 반구에 형성된 잠재적인 언어구조(latent language structure)속에 모국어 습득 저장되어 있다가, 학습자가 모국어와 상이한 외국어를 습득하게 되면 새로운 언어 구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적 언어 구조를 사용하려고 한다. 이때 모국어도 목표어도 아닌 중간 언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³³⁾

Richards는 오류의 원인으로 간섭 현상,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 언어 수행상의 오류, 과도기적인 언어능력에서 오는 오류, 의사소통 및 동화를 위한 책략, 교사에 의하여 유발된 오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으며³⁴⁾, Selinker는 외국어

33) M. Dennis(1982), "Making Errors and Making Progress", *The English Teacher's Magazine* 13, pp.66~71.

34) J. Richards(1971), "Error Analysis and Second Language Strategies", *Language Science*, 17, pp.12~22.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이유에 대하여 모국어로부터의 전이, 학습과정으로부터의 전이, 교재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방법,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학습 목표 언어 규칙의 과잉 적용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³⁵⁾

Jain은 학습자가 언어 지식의 한계로 인해 규칙을 과잉 적용하여 발생하는 체계적 오류, 강렬한 흥분과 같은 심리적 조건이나 피로와 같은 육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체계적 오류, 그리고 막연한 애매모호한 오류를 들어 그 원인을 피력하고 있다.³⁶⁾ 그리고 Corder(1973)는 오류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외국어 학습시에 모국어의 습관이 외국어에 작용하는 현상, 학습목표어의 정확한 규칙을 알면서도 적용하는 규칙에 대한 범주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으로 모국어 영향과는 상관없이 생기는 규칙의 과잉일반화, 수업에 사용된 자료와 지도방법에서 야기된 수업에서 유발된 오류 이 세 가지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³⁷⁾

(1) 언어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

전이는 일반적으로 전에 학습한 바가 있는 행동이 후에 학습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조분석에 있어서 언어간 전이는 모국어의 습관 또는 규칙이 목표어로 옮겨지는 현상을 말한다.

Taylor는 전이에 의한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ransfer errors, however, are entirely different overgeneralization in origin. A transfer error is here defined as any error in a target language while it can be attributed to the structure of a native language.³⁸⁾

35) L. Selinker(1972), *op. cit.*, pp.209~231.

36) M. P. Jain(1974), "Error Analysis: Source, Cause and Significance", *Error Analysis*, Longman Group Ltd., pp.202~206.

37) 양창민(2000), "중3영어학습자의 오류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p.16.

38) B. P. Taylor(1975), *op. cit.*, p.103.

외국어 학습자의 학습초기 단계의 특징은 상당히 많은 언어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 혹은 간섭(interference)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단계의 학습자는 그의 경험 속에서 아직 모국어가 유일한 언어체계이고, 외국어 규칙에 대한 가설을 세울 때 외국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국어 지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최용재는 이러한 언어전이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목표어의 구사에서 모국어의 요소가 포함되거나 모국어 요소의 본을 받아서 말하는 경우이고 둘째, 목표어의 구사에서 배운 것이 충분하지 못하여 모국어의 요소를 빌어다 공백을 채우는 경우이다. 즉, 언어전이는 학습자가 모국어에 대한 지식을 새로 학습하는 목표어에 적용하거나 연관시켜 목표어 체계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루려는 학습전략이다.³⁹⁾

언어전이는 모국어와 목표어가 체계적 유사성을 지닐 때 모국어 지식이 목표어의 학습을 촉진(facilitation)시키는 긍정적 작용, 즉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나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가 크면 오히려 모국어 지식이 목표어 학습을 억제하는(inhibition) 부정적 작용, 즉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 현상이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선행학습 경험인 모국어 구조가 새로운 학습 목표어와의 차이가 있을 때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어떤 요소를 그 요소와 가장 가까운 모국어 요소로 대치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경향이 전이에 의한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2) 언어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

Taylor는 언어내 전이 즉 과잉일반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9) 최용재(1987), “대조분석의 재평가”, 영어교육 제34호, 한국영어교육학회, p.34.

The strategy of syntactic overgeneralization can be defined as a process in which a language learner uses a syntactic rule of the target language inappropriately when he attempts to generate a novel target language utterance.⁴⁰⁾

Taylor는 언어학습의 초기 단계는 간섭 즉, 언어간 전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일단 학습자들이 새로운 체계의 일부분을 습득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언어내 전이 즉, 목표어 내에서의 과잉일반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류의 원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주장은 매우 다양한데 이를 크게 분류해 보면, 모국어가 목표 언어를 간섭 방해하여 발생하는 언어간 간섭과 목표어 자체 내의 복잡성 때문에 발생하는 목표어 내부간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를 언어간 전이라 하고, 후자를 언어내 전이라 한다.

과잉 일반화는 학습자가 목표어의 정확한 규칙을 알면서도 적용할 규칙에 대한 범주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과잉 일반화는 학습자가 미리 학습을 통해 알고 있는 외국어 문법 지식을 기저로 해서 규칙에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문법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일컫는다.

(3) 학습상황 (context of learning)

세 번째 주요한 오류의 원인은 전이의 두 유형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학습상황이다. 예를 들어, 상황(context)은 학교 학습의 경우에는 교사와 자료가 있는 교실이고 정규교육이 아닌 제2언어 학습의 경우에는 사회환경(social situation)을 가리킨다. 교실상황에서 교사나 교과서는 학습자가 언어에 관한 잘못된 가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Richards(1971)는 “잘못된 개념(false concept)”이라고 부르고

40) B. P. Taylor(1975), *op. cit.*, p.74.

Stenson(1974)는 “유도된 오류(induced error)”라고 불렀다.⁴¹⁾

학생들은 교사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나 교과서에 제시된 잘못된 구조나 단어 들 혹은 적절히 상황에 맞춰지지 않은 기계적으로 암기된 문형(drill) 때문에 종종 오류를 범한다.

예를 들어 point at과 point out이라는 어휘 목록이 인접해서 제시되면 나중에는 제시의 근접성 때문에 혼동될 수 있다. 또 다른 교실 상황에서 학습된 언어의 특징은 언어의 축약되지 않고 적절치 않은 형식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언어 습득의 사회적 상황은 다른 유형의 오류를 만들어 낸다. 자연스럽게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언어 습득의 사회언어학적 상황(sociolinguistic context)은 그 자체로서 오류의 원인이 되는 어떤 방언의 습득을 가져올 수 있다. Corder(1973)의 용어로 특이한 방언(idiosyncratic dialect)은 여기에 적절히 적용된다.

(4) 의사소통전략 (communication strategies)

학습자들은 그들의 전언(message)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표현전략(production strategies)을 명백히 사용하지만 종종 이러한 기법들 자체가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조어(coinage), 우언법(circumlocution), 잘못된 동족어(false cognates), 그리고 조립식 문장(prefabricated pattern)이 모두 오류의 근원이 될 수 있다.⁴²⁾

3) 오류의 분류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분류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목적에 따라 그 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Richards는 언어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interference error)와 학습

41) H. D. Brown(2000), *op. cit.*, p.226.

42) *Ibid.*, p.227.

자의 언어 배경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언어 내적 (intralingual error) 및 발달 과정상의 오류(developmental error)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그는 언어 내적 및 발달 과정상의 오류를 언급하면서 영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오류를 네 가지로 세분하고 있는데, 규칙의 과잉 적용, 규칙 제한의 인식 부족, 규칙의 불완전한 적용, 그리고 제한된 경험으로 인하여 외국어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세우려는 시도 등이 그것이다.⁴³⁾

Corder는 언어 학습자가 범하는 체계적 오류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체계전 오류(pre-systematic error),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체계후 오류(post-systematic error)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수정 가능성과 규칙에 대한 설명능력으로 나누고 있다.⁴⁴⁾

Taylor는 규칙 확대의 오류, 언어 전이에 의한 오류, 번역상의 오류, 어원이 불확실한 오류, 그리고 그 밖의 오류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⁴⁵⁾ 그리고 Burt는 대상 목표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오류를 전반적 오류(global error)와 국부적 오류(local error)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의미상 전반적인 문장 조직에 영향을 주는 오류, 즉 문장 구조 전체에 관련되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어순, 접속사의 탈락 및 오용 등에서 일어나고 있다. 후자는 문장 내에서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특정한 요소, 즉 명사나 동사 등의 굴절 변호, 관사, 조동사, 양화사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⁴⁶⁾

James는 영어를 모국어로 학습하는 경우와 외국어로 학습하는 경우의 오류를 비교하면서 시제, 부정사, 어순, 주어-동사의 일치, 변형, 어휘, 관사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⁴⁷⁾

43) J. Richard(1971), *op. cit.*, pp.205~206.

44) S. P. Corder(1973), *Introducing Applied 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p.271.

45) B. P. Taylor(1975), *op. cit.*, pp.100~107.

46) M. Burt(1975), "Error Analysis in the Adult EFL Classroom", *TESOL Quarterly* 9, pp.56~57.

47) C. James(1977), "Judgement of Error Gravities",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al*

Brown은 오류의 범주를 다각적인 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즉 그는 오류의 범주를 첨가, 생략, 대치, 재배열의 네 가지로 나누고, 언어학적인 범주에 따라 음운 혹은 철자, 어휘, 문법, 담화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오류 형성의 단계별로 체계화 이전 단계, 체계화 단계, 체계화 이후 단계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⁴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류의 분류는 연구자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언어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 언어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 그리고 그 두가지 모두가 나타나는 언어간/언어내 전이로 분류하였다.



31, pp.116~124.

48) H. D. Brown(2000), *op. cit.*, pp.222~223.

III. 영어 쓰기 오류 분석

1. 목적 및 대상

본 연구는 중학생들이 영어 쓰기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쓰기 과정에서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는지를 조사하여, 그 오류의 내용 및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습자들의 영어 쓰기에 나타난 오류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둘째, 영어 쓰기에 나타난 오류의 발생 원인을 언어간 전이, 언어내 전이, 그리고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언어간/언어내 전이로 구분하여 학습자들이 이러한 학습 책략들 중 어느 부분에 더 의존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제주도 소재 중학교 2학년 66명과 52명의 3학년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 산출을 위하여 문항의 절반 이상을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2. 방법 및 문항

영작문을 실험하는 방법은 일정한 시간동안 제목을 제시하여 자유작문을 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나, 현재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에게 이 방법은 너무 어려워서 유의미한 결과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우리말 문장을 영작하는 번역 방법을 선택하여 전체 문장을

영작하도록 하였고 피실험자 108명에게 30문항을 주어 평가한 문항지 가운데 30명의 문항지를 선정하였다. 이 평가 문항지 가운데 한 두 단어만을 표기한 문장은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무답으로 간주하였다.

실험 방법은 실험대상인 중학교 학생의 수준에 맞춘 비교적 짧은 단문을 한글로 제시하여 45분의 제한된 시간 내에 영작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동일 문항에 대한 인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똑같은 오류로 간주되는 동일 범주의 문법 항목들을 순서없이 분리하여 작성하였다.

표집된 오류들은 몇몇 학자들의 오류 분류 방법을 참고로 하여 명사, 동사, 조동사, 형용사, 관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구조 및 어순, 어휘 및 표현 등 10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문항과 각 문항별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1〉 실험에 사용된 문항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문 법 요 소	점 검 항 목
1	나는 6시에 일어난다.	현재시제	동사, 전치사
2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현재시제	동사, 대명사
3	너는 어제 뭐했니?	과거시제	동사, 부사
4	나는 그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샀다.	과거시제	동사, 전치사
5	나는 그 소식에 놀랐다.	수동태	동사, 관사, 전치사
6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습니다.	수동태	동사, 전치사
7	나는 나의 숙제를 막 끝냈다.	현재완료	동사
8	수미는 피아노를 칠 수 있다.	조동사, 관사	동사, 조동사, 관사
9	나는 내일 바쁠 것이다.	조동사	동사, 조동사, 관사
10	나는 누이가 2명 있다.	명사의 복수형	명사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문 법 요 소	점 검 항 목
11	책상 위에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주어-동사의 일치	명사, 동사, 구조
12	그녀의 방은 크다.	소유격	명사
13	내일은 남수의 생일이다.	소유격	명사, 구조
14	이것은 사과이다.	부정관사	관사
15	그는 어제 머리가 아팠다.	부정관사	동사, 관사, 부사
16	오후에는 따뜻하다.	비인칭 it, 정관사	대명사, 관사, 전치사
17	그와 함께 그녀를 도와라.	대명사의 목적격	대명사, 구조
18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량 형용사	형용사
19	그녀는 행복하게 보였다.	형용사	동사, 형용사
20	나는 열여섯살된 중학생이다.	형용사	형용사
21	나는 해야할 많은 숙제가 있다.	형용사	조동사, 형용사
22	그는 항상 자기일에 바쁘다.	전치사, 빈도부사	부사, 전치사
23	그는 그 여자와 결혼했다.	동사, 전치사	동사, 전치사
24	그녀는 4시에 집에 온다.	동사	동사, 부사
25	이 사과 5개 주세요.	명사의 복수형, 지시형용사	명사, 형용사, 구조
26	그 꽃은 참 아름다운 꽃이다!	감탄문	구조
27	그 남자가 어디 사는지 아니?	간접의문문	동사, 구조
28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조건, 명령문	접속사
29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	기타
30	저것은 연필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부정의문문	기타

〈표 2〉 실험에 사용된 문항의 정답표

문항 번호	정답
1	I get up at six o'clock.
2	Everyone likes me.
3	What did you do yesterday?
4	I bought a book at the bookstore.
5	I was surprised at the news.
6	She is loved by everyone.
7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8	Sumi can play the piano.
9	I will be busy tomorrow.
10	I have two sisters.
11	There are many books on the desk.
12	Her room is big.
13	Tomorrow is Namsu's birthday.
14	This is an apple.
15	He had a headache yesterday.
16	It's warm in the afternoon.
17	Help her with him.
18	I have a lot of money.
19	She looks happy.
20	I am a 16-year-old middle school student.
21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22	He is always busy with his work.
23	He married her.

문항 번호	정 답
24	She comes back home at 4.
25	Give me these five apples.
26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27	Do you know where he lives?
28	Study hard. and you'll succeed.
29	What do you think about it?
30	"Isn't it a pencil?" "No, it isn't."

위에서 실험에 사용된 문장들은 조사 대상자들이 영작할 때 한국어의 간섭을 받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학습한 영어규칙을 확대적용 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3. 문법 범주별 오류 실태

그러면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영어 쓰기에 어떠한 오류를 범했는지 문법 범주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1) 명사류의 오류


문항 10. * I have two sister.

(I have two sisters.)

문항 11. * There are many book on the desk.

(There are many books on the desk.)

- 문항 12. * She's room is big.
(Her room is big.)
- 문항 13. * Tomorrow is Namsu birthday.
(Tomorrow is Namsu's birthday.)
- 문항 16. * Afternoon is warm.
(It's warm in the afternoon.)
- 문항 17. * Help her with he.
(Help her with him.)
- 문항 18. * I have many moneys.
(I have a lot of money.)
- 문항 25. * Give me these five apple.
(Give me these five apple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 명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문항 번호	오류수	문법항목	주요 오답내용	오류 원인
10	20	명사의 복수형	two sister	언어간
11	23	"	many book	"
12	21	소유격	She's room	언어내
13	15	"	Namsu birthday	언어간
16	30	비인칭 it	Afternoon is	언어간
17	24	대명사의 목적격	with he	"
18	21	불가산명사	a lot of moneys	언어내
25	30	명사의 복수형	five apple	언어간

10번, 11번과 25번 문항은 언어전이로 인하여 명사의 수 개념상의 오류를 범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에서는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확실한 반면, 한국어에서는 복수어미를 생략하고도 의미상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복수를 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복수어미 사용에 대한 기초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two sister', 'many book' 그리고 'five apple'은 모두 그러한 수 개념상의 오류이다.

12번 문항에서는 소유격을 나타낼 때 '-s'를 붙여 소유격을 만드는 규칙을 확대 적용하여 대명사 'she'의 소유격은 'her'임에도 'she's'라고 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13번 문항의 경우는 소유격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로 한국어에서는 “남수의 생일”이나 “남수생일”처럼 소유격의 개념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확실하게 구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2번 문항과 13번 문항은 둘 다 소유격 오류이긴 하나 12번 문항은 언어내 전이인 반면에 13번 문항은 언어간 전이가 그 원인이다.

16번 문항에서 “오후에는 따뜻하다.”라는 문장의 주어는 ‘오후’가 아니라 비인칭 대명사 ‘it’이 되어야 한다. 즉 영어에서는 비인칭 주어 ‘it’를 의미 없이 주어 자리를 채우는데 사용되는데 이러한 규칙을 모르고 언어간 전이의 결과에 의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에서는 격변화 규칙이 있으나 한국어는 격변화를 하지 않고 조사를 붙여 격을 표시한다. 17번 문항의 경우 영어에서는 전치사 다음에 대명사가 올 경우에는 목적격이 와야 하는 데도 우리말 ‘그와 함께’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문항 18번은 영어의 명사의 복수형에 대한 규칙을 확대 적용하여 불가산명사인 ‘money’도 ‘moneys’라는 복수형으로 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 관사류의 오류

문항 8. * Sumi can play piano.

(Sumi can play the piano.)

문항 9. * I will be busy the tomorrow.

(I will be busy tomorrow.)

문항 14. * This is apple.

(This is an apple.)

문항 15. * He had headache yesterday.

(He had a headache yesterday.)

문항 16. * It's warm in afternoon.

(It's warm in the afternoon.)

〈표 4〉 관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문항 번호	오류수	문법항목	주요 오답내용	오류 원인
8	19	악기 앞의 관사	play piano	언어간
9	26	관사 첨가	busy the tomorrow	언어내
14	19	관사 생략	This is apple.	언어간
15	27	"	had headache	"
16	30	"	in afternoon	"

9번 문항의 경우는 관사에 대해 학습한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관사가 필요 없는 곳에 관사를 추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말에서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영어 문장에서도 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관사가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간과하고 생략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14번과 16번이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5번 문항의 경우 '두통이 있다'라고 할 때 'have a headache'라는 관용적인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오류를 범했는데 관사가 존재하지 않는 모국

어 간섭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 동사류의 오류

문항 1. * I am get up at six.

(I get up at six.)

문항 2. * Everyone like me.

(Everyone likes me.)

문항 3. * What did you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문항 4. * I buy a book at the bookstore.

(I bought a book at the bookstore.)

문항 5. * I surprised at the news.

(I was surprised at the news.)

문항 6. * She loves by everyone.

(She is loved by everyone.)

문항 7. * I am just finished my homework.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문항 8. * Sumi can plays the piano.

(Sumi can play the piano.)

문항 9. * I will busy tomorrow.

(I will be busy tomorrow.)

문항 11. * There is many books on the desk.

(There are many books on the desk)

문항 15. * He is a headache yesterday.

(He had a headache yesterday.)

문항 17. * Helps her with he.
(Help her with him.)

문항 19. * She look happy.
(She looks happy.)

문항 23. * He was married her.
(He married her.)

문항 24. * She come back home at 4.
(She comes back home at 4.)

문항 27. * Do you know where he live?
(Do you know where he lives?)

〈표 5〉 동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문항 번호	오류수	문법항목	주요 오답내용	오류 원인
1	11	동사	I am get up	언어간
2	27	"	Everyone like me.	"
3	29	"	What did you yesterday?	"
4	27	과거시제	I buy a book	언어내
5	29	수동태	I surprised at the news.	언어간
6	27	수동태	She loves by everyone.	"
7	29	동사	I am finished	"
8	19	"	Sumi can plays	언어내
9	26	be동사	I will busy tomorrow.	언어간
11	23	be동사	There is many books	언어내

문항 번호	오류수	문법항목	주요 오답내용	오류 원인
15	27	동사	He is a headache	언어간
17	24	명령문	Helps her	언어내
19	18	동사	She look happy.	언어간
23	19	"	He was married her.	언어내
24	28	"	She is home at 4.	"
27	30	"	Do you know where he live?	언어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동사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사 시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가 안 된 학생들은 일반 동사를 사용하면서도 be동사를 첨가하거나 수동태의 형태 대신에 완료의 형태를 사용하는 경향도 보였다.

문항 1번과 23번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일반 동사가 있음에도 필요 없는 be동사를 첨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be동사 첨가의 경우는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사 형태 중에서 be동사를 가장 먼저 학습하게 되는데, be 동사에 익숙해진 학습자들이 별다른 의미상의 변화를 갖지 않는 be 동사를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나 서술문에 삽입시켜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4번 문항의 경우도 일반 동사 'come' 대신에 학습자들이 익숙해진 'be'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문법적으로는 적형적이거나 의미상으로는 뜻이 달라지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번 문항의 경우 'everyone'을 단수 취급해야 한다는 규칙을 몰라서 'likes' 대신에 'like'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시제상의 오류는 시제를 혼동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목표어 자체내 규칙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언어내 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어-동사의 불일치는 복수 주어에 단수형 동사를 쓴다거나 단수 주어에

복수형 동사를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11번 문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말에서 단수와 복수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3번과 9번 문항의 경우는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서의 본동사를 생략하는 오류의 예인데 이는 학습자가 무의식중에 동사를 넣었다고 생각하고 본동사를 생략한 것으로 이것은 모국어에서는 '조동사+ 동사'형태가 사용되지 않아 동사를 생략하는 현상으로서 언어간 전이의 결과로 보여진다.

문항 4번의 경우는 과거시제 대신에 현재시제를 쓰는 오류가 많았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처음 익혀 더 익숙해진 현재형을 과거 시제에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항 5번과 6번은 수동태 규칙을 그리고 7번은 완료시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이다.

문항 8번의 경우는 조동사 뒤에서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알지 못하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시제이므로 동사에 '-(e)s'를 붙이는 규칙을 확대 적용시킨데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마찬가지로 결과가 문항 11번에서도 나타나는데 명령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야 함에도 '-(e)s'를 붙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아직 영어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의 경우 동사 뒤에 '-(e)s'를 붙이는 규칙을 습득하지 못한 학습자는 문항 19번과 27번에서와 같이 동사 뒤에 '-(e)s'를 붙여야 함에도 우리말에는 그것이 없고 의미상에서도 변화가 없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것을 생략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4) 조동사류의 오류

문항 8. * Sumi can plays the piano.

(Sumi can play the piano.)

문항 9. * I will busy tomorrow.

(I will be busy tomorrow.)

문항 21. * I will many homework to do.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표 6〉 조동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문항 번호	오류수	문법항목	주요 오답내용	오류 원인
8	19	조동사 동사원형	can plays	언어내
9	26	"	will busy	언어간
21	29	조동사 첨가	I will/have to/must	"

8번 문항은 조동사 다음에는 인칭, 시제 등에 관계없이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이유로 동사에 ‘-(e)s’를 붙이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목표어인 영어의 규칙을 과잉일반화한 결과이다. 문항 9번은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필요함에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 동사를 생략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21번은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해야 할 숙제’를 미래로 받아들여 필요하지 않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사례이다.

5) 형용사류의 오류

문항 18. * I have many money.

(I have a lot of money.)

문항 20. * I'm a 16-years-old middle school student.

(I'm a 16-year-old middle school student.)

문항 21. * I have many homework to do.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문항 25. * Give me this five apples.

(Give me these five apples.)

〈표 7〉 형용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문항 번호	오류수	문법항목	주요 오답내용	오류 원인
18	21	불가산 명사	many money	언어간
20	30	서수+ 명사	16-years-old	언어내
21	29	불가산 명사	many homework	"
25	30	지시사	this five apples	언어간

수량 형용사는 다음에 오는 명사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 가산 명사 앞에는 'many'를,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의 앞에는 'much'를 붙인다. 우리말에서는 '많다'라는 형용사가 그 다음에 어떤 명사가 오든지 구별 없이 쓰이는 것처럼, 명사가 양과 수에 의한 제약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18번 문항과 21번 문항에서 불가산 명사 앞이므로 'much'를 사용해야 하고 구어체이므로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a lot of'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말에서는 '많다'라는 형용사가 뒤에 어떤 명사가 오든지 상관없이 쓰이므로 의미상으로는 별 차이 없는 'many'를 그냥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문항 20번의 경우는 '수사+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 즉 어휘가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에 이 부분의 수사는 단수형을 쓴다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말미암아 수사 다음의 명사에 복수 규칙을 적용하여 복수의 어미'-(e)s'를 첨가시

킨 경우이다. 즉, ‘16살’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의 개념이므로 불필요한 복수어미를 첨가시키는데서 오는 오류이다.

문항 25번의 경우 ‘these’ 대신에 ‘this’ 는 지시사의 단수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국어의 영향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표현에서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이, 저’라는 지시사는 수의 구분 없이 사용하므로 인해 ‘these’대신 ‘this’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영어의 수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아서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간전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6)부사류의 오류

문항 15. * He had a headache on yesterday.

(He had a headache yesterday.)

문항 22. * He always is busy with his work.

(He is always busy with his work.)

문항 24. * She comes back to home at 4.

(She comes back home at 4.)

〈표 8〉 부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문항 번호	오류수	문법항목	주요 오답내용	오류 원인
15	27	부사	on yesterday	언어간
22	29	빈도부사	always is busy	"
24	28	부사	to home	"

22번 문항은 영어에서 빈도부사의 위치는 be동사나 조동사 뒤에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규칙을 학습은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오류를 범했는데 이는 한국어 어순에 지배를 받는 모국어 간섭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4번의 경우 'home'은 장소의 부사이므로 전치사가 불필요하지만 우리말의 '~에'의 의미를 그대로 영어로 옮겨 불필요한 전치사 'to'를 첨가한 것으로 언어간 전이에 의한 오류이다. 문항 15번도 역시 불필요한 전치사를 첨가한 오류이다.

7) 전치사류의 오류

문항 1. * I get up 6.

(I get up at 6.)

문항 4. * I bought a book the bookstore.

(I bought a book at the bookstore.)

문항 5. * I was surprised the news.

(I was surprised at the news.)

문항 6. * She is loved everyone.

(She is loved by everyone.)

문항 16. * It's warm the afternoon.

(It's warm in the afternoon).

문항 22. * He is always busy his work.

(He is always busy with his work.)

문항 23. * He married with her.

(He married her.)

문항 24. * She comes back to home at 4.

(She comes back home at 4.)

〈표 9〉 전치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문항 번호	오류수	문법항목	주요 오답내용	오류 원인
1	11	전치사생략	I get up 6.	언어간
4	27	"	I bought a book the book store.	"
5	29	"	I was surprised the news.	"
6	27	"	she is loved everyone.	"
16	30	"	It's warm the afternoon.	"
22	29	"	He is always busy his work.	"
23	19	전치사삽입	He married with her.	"
24	28	"	She comes back to home at 4.	언어내

전치사의 오류는 주로 전치사의 부적절한 사용과 생략에 의한 오류이다. 전치사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의 대부분이 전치사에 대한 규칙을 잘 모르거나 영어 자체 내의 규칙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23번 문항의 경우 불필요한 전치사를 넣는 경우로 한국어의 '~와'의 의미를 그대로 영어로 옮겨 씌므로써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전치사 오류는 언어간 전이의 결과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8) 접속사류의 오류

문항 28. * Study hard, then you will succeed.

(Study hard, and you will succeed.)

〈표 10〉 접속사류 오류의 분포현황

문항 번호	오류수	문법항목	주요 오답내용	오류 원인
28	29	접속사	Study hard, then/if/so/after	언어내

접속사류에 대한 오류가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문항과 달리 접속사류에 대한 문항은 1개의 문항만이 제시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접속사의 오류는 알맞은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알맞지 않은 형태의 접속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는 언어내 전이에 의한 오류로 볼 수 있다.

9) 구조(어순)류의 오류



문항 11. * Many books on the desk.

(There are many books on the desk.)

문항 13. * Namsu's birthday is tomorrow.

(Tomorrow is Namsu's birthday.)

문항 17. * With him help her.

(Help her with him.)

문항 25. * These five apples give me.

(Give me these five apples.)

문항 26. * The flower is pretty.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문항 27. * Do you know where does he live?

(Do you know where he lives?)

〈표 11〉 어순 오류의 분포현황

문항 번호	오류수	문법항목	주요 오답내용	오류 원인
11		어순	Many books on the desk.	언어간
13		"	Namsu's birthday is tomorrow.	"
17		"	With him help her.	"
25		"	These 5 apples give me.	"
26		감탄문	The flower is pretty.	"
27		간접의문문	Where does he live you know?	"

구조상의 오류는 영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어순상의 오류는 간접의문문 및 감탄문의 어순에 대한 오류이외에도 모국어의 영향을 받은 부정적 전이에 의한 오류가 대부분으로, 이는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영어 표현으로 옮겨 발생한 오류이다. 11번, 17번과 25번은 한국어를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27번 문항은 의문문의 어순 즉 '의문사+ 동사+ 주어'의 규칙을 간접 의문문에 확대 적용한 오류이다. 이는 간접 의문문에서의 어순 즉, '의문사+ 주어+ 동사'의 규칙을 알지 못하여 이미 알고 있는 의문문의 어순 규칙을 확대 적용한 언어내 전이에 의한 오류라 할 수 있다. 감탄문에서도 학생들이 모국어의 간섭을 받아 우리 말을 적용시킴으로써 많은 오류를 범했다.

10) 표현류의 오류

문항 29. * How do you think about it?

(What do you think about it?)

문항 30. * “Isn’t it a pencil?” “Yes, it isn’t.”
 (“Isn’t it a pencil?” “No, it isn’t.”)

〈표 12〉 표현류 오류의 분포현황

문항 번호	오류수	문법항목	주요 오답내용	오류 원인
29	29	what	How do you think	언어간
30	28	부정의문문	Is it a pencil? Yes, it isn't. No, it is.	"

문항 29번은 우리말에서의 ‘어떻게’를 영어 문장에 그대로 옮기면서 생겨난 오류로써, 영어에서 ‘what’이 필요한 곳에 ‘how’를 사용한 경우로 전형적인 언어간 전이의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30번 문항은 영어에서는 긍정 의문문이든 부정 의문문이든 그에 대한 대답은 같으나 우리식 사고방식으로 “Yes, it isn’t” 혹은 “No, it is”로 대답을 하여 한국어의 영향을 받은 언어간 전이에 의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4. 오류 분석 결과

본 실험 대상의 영어 쓰기에서 추출한 오류를 문항별, 품사별, 오류의 발생 원인별의 세 가지로 세분하였다.

문법적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영작한 답만을 정답으로 하고 무의식중에 반복적 체계적으로 나타난 오류를 오답으로 하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거나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무답으로 구분하였고 무답은 오답에 포함하여 처리하였다.

〈표 13〉 전체 문항에서의 정답 수와 오답 수 현황

수 및 백분율	구분	문항수	정답수	틀린 답수	
				오답수	무답수
수		900	155	593	152
백분율		100%	17.2%	65.9%	16.9%

〈표13〉에 나타난 것처럼 총900문항 중 17.2%인 155 문항만이 정답이고, 전체의 65.9%에 해당하는 593 문항이 오답이었으며, 16.9%인 152 문항이 무답으로 나타났다. 무답을 제외한 593 문항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한 문장에서 틀린 곳이 두 곳 이상의 경우 각각을 오답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아래의 〈표 14〉는 문항별 오류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냈다. 아래에서 살펴보면 오류가 가장 적은 문장은 1번 문항 “I get up at 6”으로 나타났다. 13번 문항 “Tomorrow is Namsu’s birthday.”도 그 다음으로 적은 오류를 나타냈다. 이 문항들은 비교적 간단하고 자주 표현하는 문장이므로 오류를 범하는 학생이 가장 적었다. 반면에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한 문장은 16번 문항 “It’s warm in the afternoon”과 20번 문항 “I am a 16-year-old middle school student.” 그리고 25번 “Give me these five apples.”와 27번 “Do you know where he lives?”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인칭 주어 ‘it’과 관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또 영어 어순에 충분히 익숙하지 못하여 한국어의 어순을 따르는 습관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어 언어간 전이에 의한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문항별 오류의 빈도와 비율

구분 문항 번호	오답수	해당문항별 오류율(%)	오답율 (%)	빈도 순위	구분 문항 번호	오답수	해당문항별 오류율(%)	오답율 (%)	빈도순 위
1	11	36.7	1.48	30	17	24	80	3.22	19
2	27	90	3.62	14	18	21	70	2.82	22
3	29	96.7	3.89	5	19	18	60	2.42	28
4	27	90	3.62	14	20	30	100	4.03	1
5	29	96.7	3.89	5	21	29	96.7	3.89	5
6	27	90	3.62	14	22	29	96.7	3.89	5
7	29	96.7	3.89	5	23	19	63.3	2.55	25
8	19	63.3	2.55	25	24	28	93.3	3.76	12
9	26	86.7	3.49	18	25	30	100	4.03	1
10	20	66.7	2.68	24	26	22	73.3	2.95	21
11	23	76.7	3.09	20	27	30	100	4.03	1
12	21	70	2.82	22	28	29	96.7	3.89	5
13	15	50	2.01	29	29	29	96.7	3.89	5
14	19	63.3	2.55	25	30	28	93.3	3.76	12
15	27	90	3.62	14	계	745	(평균82.8)	100	
16	30	100	4.03	1					

다음 〈표 15〉는 전체 오류 중 각 유형별 오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다수의 문항에서 두 가지 이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5〉 유형별 오류의 빈도와 비율

문법 항목	문항번호	문항수	오류수	오류의 평균빈도	오류율(%) (오류수/문항수)	전체 오류 중 오류 비율(%)
명사	10,11,12,13, 16,17,18,25	8	184	23	76.7	8.9
관사	8,9,14,15,16	5	121	24.2	80.7	9.37
동사	1,2,3,4,5,6,7,8,9 11,15,19,23,24,27	15	369	24.6	82	9.52
조동사	8,9,21	3	74	24.7	82.2	9.56
형용사	18,20,21,25	4	110	27.5	91.7	10.65
부사	15,22,24	3	84	28	93.3	10.84
전치사	1,4,5,6,16,22,23,24	8	200	25	83.3	9.68
접속사	28	1	29	29	96.7	11.23
구조 (어순)	11,13,17,25,26,27	6	144	23.8	80	9.21
기타	29,30	2	57	28.5	95	11.03
계	30문항	55	1,372	258.3	(평균86.1)	99.99

위 유형별 분석결과에서 오류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접속사 오류로서 오류율이 96.7%이고 전체 오류 중 오류비율이 11.23%에 해당하였다. 이는 접속사 항목에 대한 기초지식의 부족에서 생겨난 오류라고 판단되나 또한 접속사에 대한 문항이 하나뿐이어서 정확히 학습자의 학습상 난이도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오류의 빈도순위와 오류율을 살펴보면 표현(95%), 부사(93.3%), 형용사(91.7%), 전치사(83.3%), 조동사(82.2%), 동사(82%), 관사(80.7%), 구조(어순) (80%), 명사(76.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으로 접속사가 가장 어렵고 명사가 가장 쉽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는 실험문항들의 난이도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오류의 원인별 결과를 보기로 하자.

〈표 16〉 오류의 원인별 결과

오류원인 구분	언어간 전이	언어내 전이	언어간/언어내 전이	총오류수
오류수	393	108	244	745
비율(%)	52.75	14.5	32.75	100

위에서 보듯이 언어간 전이에 의한 오류는 전체 오류 중 52.75%이고, 언어내 전이에 의한 오류가 14.5%로 나타났고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언어간/언어내 전이도 32.75%에 해당하였다. 언어간 전이에 의한 오류가 언어내 전이에 의한 오류보다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모국어의 영향보다 이미 학습한 목표어의 규칙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어 학습 초기에는 언어간 전이에 의한 현상이 뚜렷하지만 학습이 진전될수록 언어내 전이 현상이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아직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영어 학습에서 모국어의 전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IV. 결 론

영어 교육에서 쓰기 기능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입시 위주 교육의 영향으로 쓰기 교육이 경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쓰기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많은 학습자들은 영어 쓰기에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인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비교적 평이한 어휘와 간단한 문법 요소로 된 한국어 문장을 영작하게 하여 그들이 범하는 오류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영어를 학습하기 시작하면서 학습자는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표현하지 못하고 규칙에서 벗어난 문장을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는데 학습자가 교수 목표를 향하여 얼마나 향상되어 왔는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더 학습할 것인가를 지시하며,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학습되어지며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학습자의 오류분석을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실험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외국어 습득과 관련 있는 대조분석가설, 중간언어, 그리고 오류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실험연구를 위해서는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0문항으로 조사된 자료의 오류를 문법적 분류 방법을 이용하여 품사별로 분류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고, 오류의 원인에 따라 언어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 언어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언어간/언어내 전이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첫째, 총 900문항 중에서 정답수는 155개(17.2%), 오류 수는 593개(65.9%), 무답수는 152개(16.9%)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에서 나타난 오류의 발생율을 살펴보면 항목별로 오류의 빈도순에 따라 접속사(96.7%), 표현(95%), 부사(93.3%), 형용사(91.7%), 전치사(83.3%), 조동사(82.2%), 동사(82%), 관사(80.7%), 구조(어순) (80%), 명사(76.7%)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오류의 원인별로 보면 언어내 전이에 의한 오류율이 14.5%, 언어간 전이에 의한 오류율이 52.75%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32.75%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아직 목표어 체계를 습득하지 못하였기에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국어 체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처럼 학습자들은 모국어와 영어의 구조 자체의 어려움과 불규칙성으로 인한 언어간 전이와 언어내 전이로 인하여 교사의 노력에 관계없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영어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언어간 전이에 의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며, 문법적인 요소에 대한 지식을 조금 습득한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목표어의 규칙을 일반화시켜 적용하는 언어내 전이에 의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오류 수정 방안을 연구하여 상황에 맞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오류가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피하려고 하지 말고 학습자들이 자신이 범한 오류를 스스로 인지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쓰기에 대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언어 습득의 궁극적 목적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에 있으므로 지나치게 오류를 찾는 데 주력하여 자연스러운 의사전달을 오히려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류를 교정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김지언(2002), “한국 학생들의 영작문에 나타난 오류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대학원.
- 민찬규(1994), “영어교육과 쓰기교육”, 「영어교육」 제48호, 한국영어교육학회.
- 신영득(1999), “오류분석 : 중3학생들의 영어작문을 통한 오류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창민(2001), “중3영어학습자의 오류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진형(1989), “오류분석의 방향과 문제점”, 「영어교육」 제37호, 한국영어교육학회.
- 이계순(1977), “오류분석과 대조분석의 방향과 그 적용”, 「응용언어학」, 제9권 제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기수(1992), “중학생 영작문에 나타난 오류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윤순(1991), “오류분석을 통한 쓰기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 중학교 2학년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 교육대학원.
- 최의교(1997), “중학교 영어 학습에 나타난 오류에 관한 연구 : 영어쓰기에서의 오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소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용재(1987), “대조분석의 재평가”, 영어교육 제34호, 한국영어교육학회.
- Banathy, B., E. C. Trager, and C. D. Waddle, (1966), “The Use of Contrastive Data in Foreign Language Course Development”, In Albert Valdman ed. *Trend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Regents.
- Burt, M. (1975), "Error Analysis in the Adult EFL Classroom", *TESOL Quarterly* 9.
- Corder, S. P. (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RAL* 5.
- _____ (1971),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IRAL* 9.
- _____ (1973), *Introducing Applied 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_____ (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nnis, M.(1982), "Making Errors and Making Progress", *The English Teacher's Magazine* 13.
- Duskova, L. (1969), "On Sources of Errors in a Foreign Language Learning", *IRAL* 7.
- Fries, C. C. (1945),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ussein, A. H. (1971), *Remedial English for Speakers of Arabic: A Psycho-Linguistic Approach*, Austin, Texa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ress.
- Jain, M. P. (1974), "Error Analysis: Source, Cause and Significance", *Error Analysis*, Longman Group Ltd.
- Jakobovits, L. A. (1969),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ransfer Theory", *Language Learning*, vol 19.
- James, C. (1977), "Judgement of Error Gravities",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31.
- Lado, R.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 Press 7.
- Meisel, J. M. (1983), "Strategie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ore than One Kind of Simplification", *Pidginization and Creolization as Language Acquisition*,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 Nemser, W. (1971), "Apprpximative System of Foreign Language Learners", *IRAL* 16.
- Newmark, L. and D. A. Reibel (1968), "Necessity and Sufficiency in Language Learning", *IRAL*. vol. 6, no. 2.
- Oller, J. W. and S. M. Ziahosseing, (1970),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is and Spelling Errors", *Language Learning*, vol. 20, no. 2.
- Paulston, C. B. (1972), "Teaching Writing in the TESOL Classroom: Techniques of Controlled Composition", *TESOL Quarterly*, vol. 6, no. 1.
- Richards, J. (1971), "Error Analysis and Second Language Strategies", *Language Science*, 17.
- _____ (1972), "Social Factors: Inter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22.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acheter, J. & M. Celce-Murcia, (1977), "Some Reservations Concerning Error Analysis", *TESOL Quarterly*, vol. 11, no. 4.
-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RAL*, 10.
- Stevens, P. (1965), *Papers in Language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B. P. (1975) "The Use of Overgeneralization and Transfer Learnig Strategies by Elementary and Intermediate Student of ESL", *Language*

Learning 25.

Wardhaugh, R.(1970),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TESOL Quarterly*,
vol. 4, no. 2.

Whitman, R. L. and K. L. Jackson (1972), “The Unpredictability of Contrastive
Analysis”, *Language Learning*, vol. 22, no 1.

Whitman, R. L.(1970), “Contrastive Analysis: Problems and Procedures”,
Language Learning, vol. 20, no. 2.



<Abstract>

**An Error Analysis of English Composition
by Middle School Students**

Kang, Mi-sook

English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Wan-s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and account for sources of errors made by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learners. By drawing upon the methodology of error analysis, this study attempts to describe and explain types of learner errors attributed to interlingual transfer, intralingual transfer, and both of them.

In the second chapter, I have dealt with theoretical background to error analysis related to English learning: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interlanguage theory, and error analysis theory.

In order to investigate what factors cause learners' errors, I have chosen 108 students in the second and third year of Kim-nyoung

Middle School as subjects for the experiment implement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asked to translate 30 Korean sentences into English within 45 minutes. All the sentences included in the experiment were selected from middle school English text books.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The errors have been classified into 10 grammatical categories: noun, article, verb, modal, adjective, adverb, preposition, conjunction, word order, and expression. The errors have been further analyzed in terms of plausible sources of errors attributable to interlingual transfer, intralingual transfer and both of them.

Amo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1) Among 900 items, 155 items have been correctly answered(17.2%), and 745 items incorrectly answered (82.8%). The incorrect ones were divided into two kinds of answers: erroneous ones 593(65.9%) and no responses 152(16.9%).

(2) The errors resulted from interlingual transfer are 52.75%, intralingual transfer 14.5%, and the mixed ones 14.75%.

(3) The errors of conjunction occupies the highest and noun the lowest ratio of them.

The findings suggest that error analysis can serve as a useful method of identifying types and sources of errors. They provide teachers with valuable information about learners: their interlanguage system. This study shows one way in which error analysis can be used to identify and understand various sources of errors, which will provide a basis for helping learners develop their interlanguage system in pedagogically sensible and effective ways.